

■ 오늘 제573돌 한글날 / 도내 초·중·고 '제주어' 교육 한계

전문강사 태부족... 사실상 맛보기 수준

일선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많아”
전문가 “전문교원 양성위한 교육기관 지정부터”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미래세대로 잇기 위한 교육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제주어 교사 양성 등에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제주어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일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도내 학교 현장에서도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제주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5년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제주어 교육 주관 운영, 제주어 자료 개발·보급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주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 등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제주어 교육에 애를 먹기도 한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자체

적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여는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교사 중에도 제주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있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문 교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도내에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제주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는 탓이다.

현재 민간단체가 제주도의 보조를 받아 각각 진행하는 제주어 교육이 전문적 자질을 갖춘 강사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제주어 전문 교육 기관이 우선 지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주도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2018~2022)에도 제주어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도지사 경축사를 통해 관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제주어 교사 자격 인증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결을 매지 못하고 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박사는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주어 강사를 양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제주어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등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는 물론 제주도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일본 향할 듯

기상청 “12일 도쿄 상륙”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동해가 아닌 일본 열도를 곧바로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기비스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관 북북서쪽 약 5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3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 915hPa, 최대풍속 초속 55m, 강풍반경 450km로 강도 ‘매우 강’의 중형급 태풍이다. 이후 태풍 하기비

스는 계속 북진, 오는 12일 오후 3시쯤 일본 도쿄를 통해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발생한 18개의 태풍 가운데 제5호 다나스(7월), 8호 프란시스코(8월), 9호 레기마(8월), 10호 크로사(8월), 13호 링링(9월), 17호 타파(9월), 18호 미탁(10월) 등 7개가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50년, 1959년과 더불어 가장 많은 수치다. 6개가 지나간 해도 1914년, 1933년, 1976년에 불과했다.

송은범기자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액 110억

농작물 유실·침수 6211ha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22일 제17호 태풍 ‘타파’의 강한 호우 및 바람으로 4월 기준 3억8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복구금액은 109억6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9월 29일까지, 사유시설은 10월 2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서흥

동 도로의 석축이 25m 붕괴되며 인도 등이 함께 유실됐다. 또 하천 피해로 도근천 및 소왕천의 호안이 총 28m가 유실되는 등 총 10건, 2억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6억67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침수 6211ha 산림작물 219ha, 농림시설 0.46ha, 꿀벌 개량장 42군, 축산시설 3건, 수산증양식시설 1건(244㎡), 주택 반파·침수 9건, 소상공인 피해 1건, 1억6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102억95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공항 직원에 주먹질 30대女 벌금 300만원

공항 대합실 입장을 거부 당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국내선 출발 격리대 합실로 들어가려다 공항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에 해당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송은범기자



물질 끝낸후... 소라 선별 8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녀들이 잡은 소라를 크기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벌써 60억...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

을 9월까지 412건 피해신고... 금융·대출업체 사칭

제주에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벌써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016년 304건(피해액 24억9000만원), 2017년 378건(피해액 34억3000만원),

2018년 505건(피해액 55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412건·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찌감치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었다.

과거 수사기관 사칭이나 납치 빙자가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를 사칭,

각종 수수료 명목 또는 대한대출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505건 가운데 444건이 이러한 ‘대출사기형’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금감원 제주지원 및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나섰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Farming+ @JEJU Fair 6차산업 가치와 미래를 더하다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
2019. 10. 12(토) - 14(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FOOD SHOW EVENT
청정 제주의 원재료를 가지고 즐기는 눈과 입이 즐거운 푸드쇼

CARICATURE EVENT
세계 유명작가들과 함께하는 캐리커처 이벤트

Pre-Register EVENT
사전등록 참가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푸짐한 기회가 여러분을 찾습니다.
| 사전등록 방법 |
Farmingplusjeju.com -> 참가객 사전신청 등록하기
-> 사전등록 참가객 사전신청 확인 문자를 받으면 성공!

김소봉 셰프
제주산 돼지고기를 이용한 쿠키쇼

윤미월 요리연구가
제주산 옥돔과 배김치 소스를 이용한 쿠키쇼

강창건 셰프
(전미명가 대표/다금바리 명인)
제주산 다금바리 질라쇼

해녀의 부엌
해녀의 이야기와 해산을 채취부터 요리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다이닝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b**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화지원센터
ICCJEJU 제주외식리 제주CBS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문의처 |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 운영사무국
TEL : 064-735-1036 FAX : 064-735-1098